

제6차 OECD 세계포럼

미래의 웰빙

• 디지털화와 웰빙 •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 • 기업의 역할과 웰빙

전 세계 100여 개국, 1,500여 명의
국제기구, 각국 정상급 인사,
노벨상 수상자, 시민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함께하는
제6차 OECD세계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11월 27일~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 참가대상자

-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
-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의 연구자 / 국제기구, 언론, 시민단체, 기업 등의 주요 인사

■ 참가신청 및 등록

- 제6차 OECD세계포럼은 초청에 의해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oecd-6wf.go.kr)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사

김동연	제6차 OECD세계포럼 준비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신목	통계청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양델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
라비 칸부르	코넬대학교 세계화·경제학 교수
올리아 뎀스롭	『과부라 시대의 생존과 번영』 저자
크리스틴 피터슨	미래학자, 나노학자, Foresight 연구소 공동 설립자

■ 주요 프로그램

DAY 1 | 2018년 11월 27일(화)

10:30-11:00	(기조연설)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책임감 있는 세상
11:30-13:00	(전체회의)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디일까?
13:15-14:00	(가짜회견)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 추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 발표
15:00-15:30	(전체회의) 디지털화와 웰빙

DAY 2 | 2018년 11월 28일(수)

09:00-09:30	(기조연설) 정부와 사회 간 신뢰회복
09:30-11:00	(전체회의)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과 거버넌스
13:45-14:30	(대담) 조지프 스티글리츠(노벨 경제학상) - 데이비드 콜락(뉴질랜드 보건부 장관) 대담
14:30-16:00	(전체회의) 기업의 목표로서 웰빙과 포용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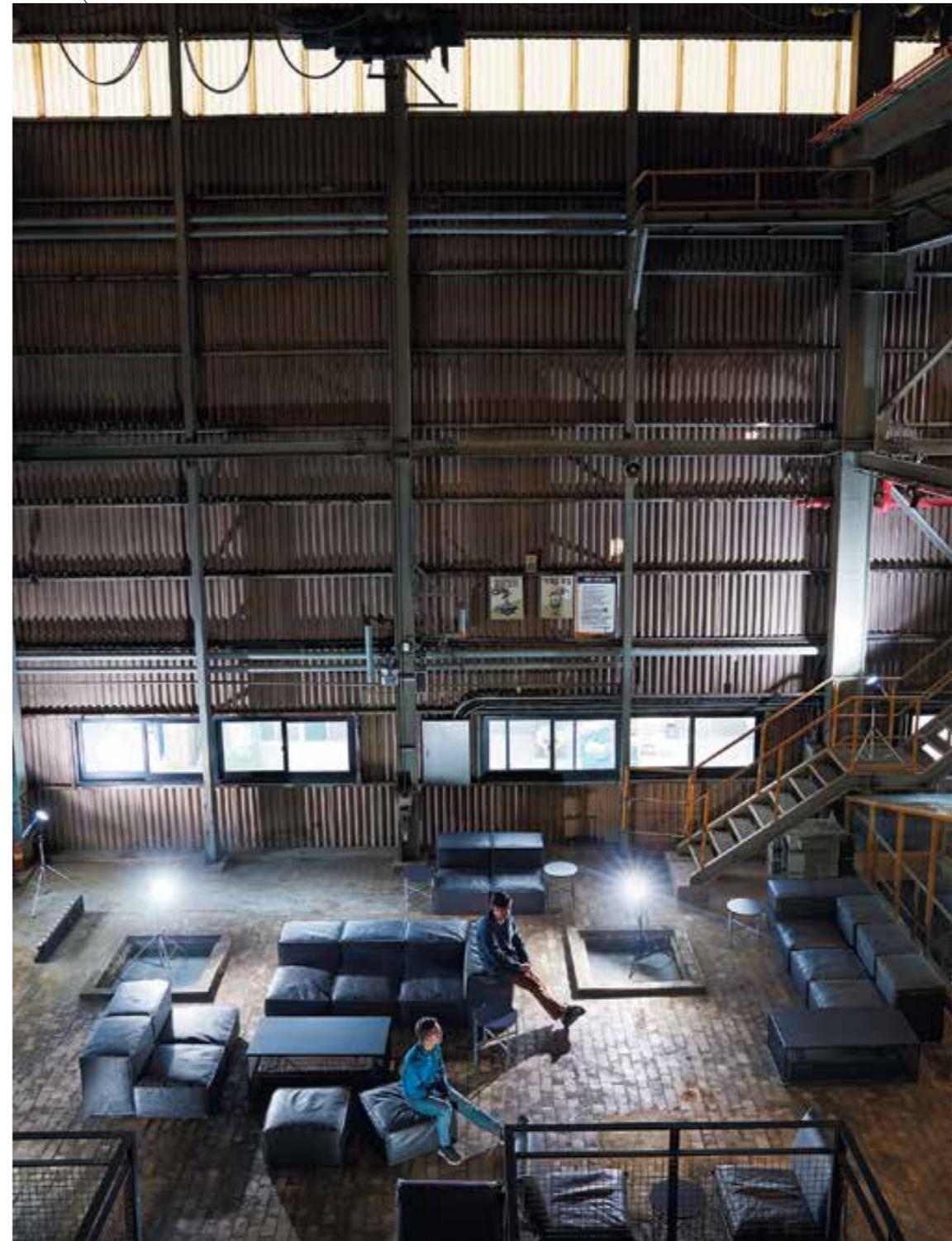
DAY 3 | 2018년 11월 29일(목)

09:00-09:30	(기조연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버넌스
13:15-13:45	(가짜회견) 글로벌 개발전략
14:30-16:00	(전체회의) 미래일명 계획
16:00-16:30	(태권연설) 미래의 웰빙을 준비하며

■ 부대 행사

- OECD세계포럼 전시회, 부대회의, 양·디지털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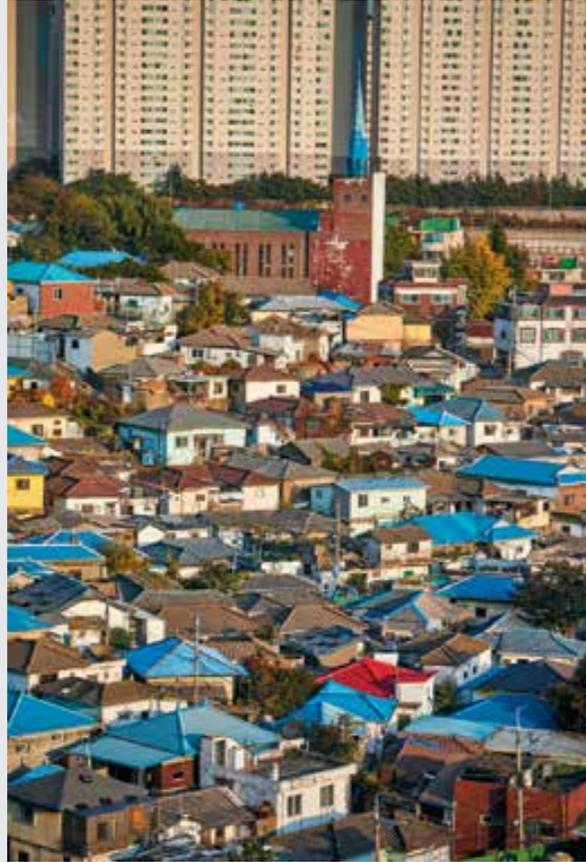
행사문의 Tel. 042-489-2924 Email. oedd2018@korea.kr
등록문의 Tel. 02-6245-6339 Email. oecdwf2018_reg@intercom.co.kr



COVER STORY
Retro? Newtro!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의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서구 기풍의 옛 '코스모타워' 공장 지구, 굳게 잠겼던 공장이 대공간 '코스모 40'으로
다시 품을 열었다. 이제 문화예술가와 기획자, 주민들이 이 공간을 채워갈 것이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18년 11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편집인 장훈(미디어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 편집장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보섭·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인쇄 (주)씨에디터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철거 열흘 전, 부평구 십정동(2017년 11월).
지금은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그리움으로 남은, 마지막 산동네

소외된 사람들의 마을이었다.
1960년대 중반, 도시개발에 밀려난 철거민들이 모여들었다.
그늘진 땅 한 자락까지, 열기설기 지은 판잣집들이 다지닥지 붙어 있었다.

도시개발의 바람 속에, 지금 이 동네는 없다.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처음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살고 싶어.”
돌이켜 생각하면,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보다 그래도 행복했던 추억이 많다.

막막했던 때,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찾은 곳이었다.
공사판 자욱한 먼지 속에,
삶의 냄새 가득한 풍경은 그리움으로만 남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CONTENTS

- 04 인천 미소 그 겨울, 강화도 외
- 06 특집 ‘아날로그의 반격’
- 14 민선 7기 주요 정책 방향
- 18 시민 참여 테마여행상품
- 24 커버스토리 Retro? Newtro! ① 대공간 ‘코스모 40’
- 28 인천 로케이션 인천국제공항, 드라마 ‘여우각시별’
- 32 인천 VS 세계 도시 ① 아트센터 인천 VS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36 얼굴 좀, 봅시다 화가가 된 약국집 막내딸 고제민
- 38 문화 캘린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 버전 10주년 - 인천 외
- 40 문화 11월 공연·축제
- 42 시정 뉴스 원도심 활성화 대책 발표 승기천·골포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외
- 48 의정 뉴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찬회 실시 외
- 50 컬러링 인천 시민시장
- 52 Info Box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슬로건 시민 공모 외
- 57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브랜드, 혁신을 갖고 놀다·레고
- 58 인천의 아침 K팝 뿌리, 인천 음악 클럽의 부활
- 59 인천 사는 나무 장수동 은행나무



굿모닝인천은 웹진(goodmorning.incheon.go.kr),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한 ‘굿모닝인천’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미디어담당관실 T.032-440-8306

인천과 독자를 잇는 ‘미’디어
독자에게 인천을 알리는 ‘소’식통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 있습니다.
항상 미소 짓습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그 겨울, 강화도

독자 전범준 서울 마포구



지난 9월이던가요. 인적 드문 강화도 산자락에 문학관을 지은 한 시인의
글을 읽고 무척이나 부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독
립해 부모의 책임이 웬만큼 마무리되면, 강화도에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하나둘 모은 LP판과 CD, 좋아하는
책들로 꾸민 오두막집에 오랜 벗들이 놀러 오면 우리 젊은 날의 음악을 크
게 틀어놓고 맛있는 음식을 해 함께 먹는 거지요. 봄이면 갯벌에서 주워
올린 백합을, 가을에는 바다에서 낚아 올린 물고기를 식탁에 푸짐히 차리
고요.

첫 직장일 겁니다. 제 거래처가 인천 소재 기업인 게 인연이 돼 신혼 초 아
내의 손을 잡고 ‘디스코 팡팡’으로 유명한 월미도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강화도는 전등사 산비탈에 있는 수림원의 소나무 밑에 잠든 고 오규원 시
인의 나무를 본 뒤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제자 시인의 손바닥에 손톱으로 써서 남겼다는 절명시. ‘한적한 오후다/불
타는 오후다/더 잃을 것이 없는 오후다/나는 나무 속에서 자 본다’. 아무래
도 그 시가 마음이 꿈쩍이도 어지럽던 그날, 제 마음속 폭풍을 가라앉힌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겨울 전등사를 특히나 좋아합니다. 차분하게 내려앉은 눈과 앙상한
나뭇가지들 때문에 사위가 온통 고요해지지요. 절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서 저마다 가슴에 품은 간절한 바람을 느끼는 게
절이기도 합니다.

‘굿모닝인천’은 제게 강화도의 매력을 잊지 않고 전하는 잡지입니다. 젊은
부부가 강화도 백년 고택에 서점을 차린 소식도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벌써 바람이 차갑습니다. 가을비가 내린 뒤 찾아온 바람에서 겨울이 다가
옴을 느낍니다. 추위를 녹여주는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전등사의 겨울내
음을 떠올려봅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 440-8305/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

인천미소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을 입력하세요.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톡(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의 목소리’

노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우리 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인천시민으로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구가 증
가하고 평균 수명이 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네요. 저희 어머니
도 일할 데가 없어 쓸쓸히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
자리와 복지 프로그램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창준 연수구 원인재로

원도심의 전성기, 다시 누리다

온 가족이 함께 인천의 골목 축제인 낭만시장축제에 갔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에서 옛날 골목에서 보던 놀이
기구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모처럼 모인 원도심에서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의 전성기를 다시 누리
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흑백사진도 찍어보며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가 원도심을 살리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김정실 중구 도원로

‘대한서림’에서 ‘소금빛서점’까지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인천의 대한서림에서 각종 책과 참고서를 구입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
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대한서림에서 책을 고르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서점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굿모닝인천’에서 강화도 ‘소금빛서점’의 이야기를 접하고 소중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동네 서점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지영 미추홀구 수봉로

평범한 사람들의 ‘소확행’

인천대공원에서 미화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주우면서 공원에 있는 ‘숲속도서관’을 정리합
니다. 여기서 ‘굿모닝인천’을 처음 접했습니다. 인천에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던 인천, 인천 사람들의 이야
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천대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영옥 부평구 길주로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굿모닝인천’ 1년 모으면 ‘올웨이즈 인천!’

‘굿모닝인천’을 올 한 해 매달 모아 차곡차곡 쌓으면,
인천시 도시 브랜드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 완성됩니다.
‘굿모닝인천’ 2018년 컬렉터에 도전해 보세요!



work



film



P-book



vinyl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날.로.그.

“디지털 유토피아로 가는 중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 물 아마존이 뉴욕 맨해튼에 오프라인 서점을 열고, 실리콘밸리 리더들의 손에는 몰스킨 노트가 쥐어져 있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스트리밍 서비스 대신 LP 레코드를 선택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섉스는 저서 ‘아날로그의 반격 (The Revenge of Analog)’에서, 아날로그가 한때의 유행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한다.

느리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를 그리워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때문이다. 손때 묻은 책을 서가에 꽂아놓을 때의 충만함. 좋아하는 레코드판을 턴테이블에 올려놓을 때의 설렘. 하얀 종이 위에 사각사각 손글씨를 써 내려갈 때의 정갈한 마음가짐. 쉽게 스쳐 지나지 않고 두고두고 간직하는 ‘진짜라는 느낌’. 분명, 디지털이 대신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영역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수록, 아날로그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아날로그만의 방식으로.”



이것이 진정한, '아날로그의 반격'.
젊은 테일러의 감성과 노장의 숙련된 기술이 빚어낸
완벽한 팀워크가,
옷 그 이상의 맞춤 정장을 만든다.



한 땀 한 땀 삶을 잇는,
위대한 손

단 한 사람을 위한, 1만 번의 손바느질. 맞춤복 한 벌은 기성복 열
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차가운 기계의 움직임은, 한 땀 한 땀 진
심을 새겨넣는 사람의 손길을 대체할 수 없다.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맞춤 양복점 '김주현 by 覺(각)'. 머리 희끗
한 재단사가 옷감을 마름질하고 있다. 가위를 든 세월이 45년이다.
손에 결은 솜씨가 익숙하고 능란하다. 이철호(67) 재단사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경동에 있는 서울양복점에 몸담았다. 경성(서울)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동네는, 경인 철도가 놓이기 전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싸리가 많던 언덕이라고 해
서 '싸리재'라고도 불렀다.



HAND MADE

이 일대엔 1970, 1980년대 서울의 소공동처럼 양복점이 즐지어 있었다. 국제기능경기대회
양복 부문 수상자 대부분이 이곳 출신일 만큼 실력도 뛰어났다. 한창때는 30여 가계가 성
업을 이뤘지만, 지금은 이수일양복점, 도성라사, 서울양복점 등 서너 곳만 쓸쓸히 남았다.
“기성복이 없을 때잖아. 바쁠 땐 하루 주문량이 50벌 정도 됐어.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몇
분 남기고 작업실에서 집으로 달려가는 날이 허다했지.” ‘드르륵드르륵’ 숨 가쁘게 달음박
질한 시간. 하지만 손끝에서 세상 단 하나뿐인 양복이 만들어지는 기쁨, 그걸로 충분했다.
인천 출신 젊은 테일러 김주현(27) 씨는 싸리재 맞춤 양복의 장인 일곱 분을 모시고, 과거
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맞춤 정장은 감정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과 다릅니다.
원단을 고르고 사이즈를 일일이 재고 스타일을 만들기까지 정서적인 교감이 뒤따르지요.
과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실력과 진정성만 있으면 고객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부터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옷을 짓던 장인들을 모시고, 그가 어릴 때부터 머물던 원도심 한복판에 당당히
맞춤 양복점을 냈다.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전 과정을 수작업하고, 솜
씨가 좋다고 소문나면서 사람이 모여들었다. 인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인 SK와이번스
와 인천유나이티드 선수들, 최민수, 유재석 등 유명 연예인도 이집 장인들이 빚은 슈트를
입는다.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기성복이 나오고 나서부터일 거야. 다 끝난 줄 알았는
데, 내 지금껏 옷을 만들고 있어. 시대가 원한다니까. 허허.” 배춘학(70) 재봉사는 애관극장
앞 신라라사 시절부터 지금껏 손에서 바늘을 놓은 적이 없다. “대단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어. 난 그저 내 일을 하는 것뿐이야.” 노장이 작업장 불빛 아래서 침침한 눈을 비비며
바느질을 한다. 평생을 쏟아온 일이다. 얼마나 위대한 손을 가지고 있는지, 정작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교하다.
손때 묻은 도구가 장인과 한 몸처럼 느껴진다.





언제까지 아날로그 사진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럴 때마다 필름 카메라를 더 아끼고 매만진다.

하태우(34) 작가는 사라져 가는 동네 현상소의 명맥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올해 초 사진관의 문을 열었다. 그가 대학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한 2000년대에는 필름 카메라가 사라진 자리를 디지털 카메라가 대신할 때다. 필름 카메라를 더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들이 동경의 대상이 됐다. 사진을 가르쳐달라고, 동인천역 앞에 있는 성신 카메라를 찾아갔다. Since 1970년. 카메라가 '재산'이던 시절, 송도유원지, 월미도로 가는 나들이객들이 필름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던 곳이다. 하루에 필름 1,000롤을 팔았다. 다 지난 이야기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기존 세대에게 낡은 것으로 치부되던 필름 카메라가 젊은 세대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필름 사진으로 채워진 종이 잡지가 창간됐다. 필름 카메라를 본뜬 스마트폰 앱도 나왔다. 한번에 최대 24장까지 찍을 수 있고, 인화를 기다리듯 사흘이 지나야만 볼 수 있다. 처음 하루에 한두 명 하 씨의 사진관을 찾던 손님도 최근 수십 명으로 늘었다.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아날로그 카메라를 든 채 개항장 거리를 걷고 자유공원 언덕을 오르며, 생애 가장 빛나는 날을 추억의 앨범에 가지런히 꽂아둔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어떤 피사체를 담을지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기계를 작동시키고,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모른 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우리가 여전히 아날로그를 찾는 이유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똑딱이 필름 카메라부터, 하나하나 사연이 깃든 귀한 보물들.

— 필름 film —

추억을
만지고, 기억하다

찰칵, 콧가에 울리는 날카로운 전자음 셔터 소리.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다.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지워버린다. 다시 찍으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진을 인화하지 않게 됐다. 집집마다 장롱 깊숙이 간직하던 가족 앨범도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사진은 사라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손으로 만지고 기억할 수 있는 '진짜 사진'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인천역 가는 길에 자리 잡은 '해당화 사진관'. 요즘 보기 드물게 필름 카메라를 대여하고 필름을 현상한다. "사람들이 사진을 쉽게 찍고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뷰파인더 너머로 세상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인화하기까지, 그 과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 종이책 P-book —

'소비'하지 않고,
'소장'하고 싶은 마음

'그 많던 종이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인가 책을 읽기보다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전자책을 보는 사람도 늘었다. 물론 전자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주머니 속에 수십 권의 책을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펼쳐볼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다.

이러다 종이책이 영영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 "종이책 시장은 죽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미디어연구소 소장이었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15년 전 저서 '디지털이다(Being Digital)'에서 디지털이 지배하는 시대를 예측했다. 그가 종이책의 마지막을 예언한 2015년이 지났지만, 그 어디도 종이책의 종말을 선언한 나라는 없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조차 뉴욕 맨해튼에 오프라인 서점을 열고,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문 씨는 '이상한 아이'였다. 신도시에서 살지만, 동인천 일대에서 놀았다. '진짜 인천' 같은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다. 결국, 동네 서점을 열고 원도심에 머물게 됐다.



레코드판 viny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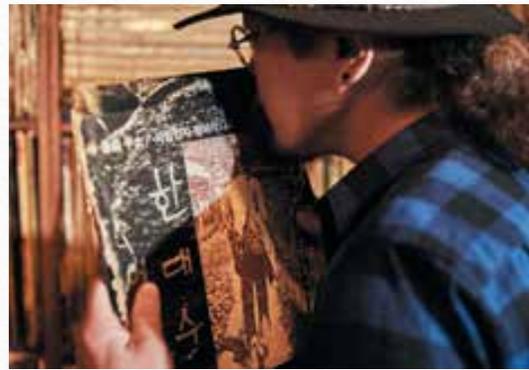
1초의 침묵,
그리고 긴 여운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이 몰락시킨 레코드판에 새 숨을 불어넣은 건, 다른 아닌 디지털이다. LP판이 희귀해지면서 사람들은 레코드판을 사고팔기 위해 인터넷으로 모여들었다. 수백만 장의 앨범이 이베이에서 경매되고 아마존에서 팔린다. 레이디 가가, 뮤즈, 마룬 파이브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도 다시 LP판을 찍기 시작했다. 싱어송라이터 닐 영에 의하면 디지털 시대를 앞당긴 고 스티브 잡스조차 LP판으로 음악을 들었다.

여기는 신포동의 음악 클럽 '흐르는 물'(Since 1989).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공간엔, 시인이자 뮤지션인 안원섭(59) 씨가 평생 모은 LP판 수천 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동인천과 신포동 일대에는 1950년대부터 음악 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해, 1980년대까지만 해도 30여 곳이 성업을 이뤘다. 오늘,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는 건 흐르는 물과 '탄트라'(Since 1979), '버텨라 인'(Since 1983)뿐이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들국화, 리드앤드블루스 등 일고여덟 개의 음악 클럽이 생겨났다. 아날로그 세대의 명곡을 듣기 위해 클럽을 찾는 젊은 층도 늘었다. 가수 아이유가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부르면서, 아이팟을 들으며 성장한 아이들이 아날로그의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끌리는 이유는 또 있다.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자연스럽고, 풍부하며, 따뜻하다. "CD나 USB로 음악을 오래 들으면 금방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하지만 LP판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내재되어 있지요. 엄마의 품처럼 편안하게 느껴져요." 한 음향기기 전문 업체의 대표도 "디지털과 아날로그 음의 차이는 '긴장'과 '이완'"이라고 말한다.

음악을 듣고 싶다. LP판이 가득한 서가에서 좋아하는 음악가의 앨범을 고른다. 레코드판을 조심스럽게 꺼내 턴테이블에 걸고 바늘을 살며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기 직전, 1초 동안의 침묵. 이 모든 과정 또한 음악이다. "여행과 그냥 놀러 가는 것은 달라요. 목적지를 찾아 짐을 꾸리고 길을 떠나는 자체가 여행이지요. 아날로그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등 굽은 소나무가 고향을 지키듯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30년간 지켜오고 앞으로 지켜갈 굳은 신념. 그녀의 '아날로그의 반격'.

"종이책은 일단 촉감으로 전해져요. 물론 저도 전자책을 보지만 시간에 쫓겨서 읽는 거예요. 그 책이 좋으면 꼭 종이책을 사요. 필요에 의해 소비하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문서희(28) 씨는 동구 화수동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시절, 그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한다. '소심한 책방'이라는 서점이 생기면서 마을을 찾는 사람이 늘고 생기가 살아났다. 작은 책방이 동네를 바꾼 것이다.

'모 아니면 도'. 부딪쳐보자, 결심을 했다. 동인천 화수동, 담배 가게였던 건물에 책 900여 권을 빼곡히 채워 '책방 모드'를 만들었다. 후미진 골목에 낯선 공간이 생기자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었다. 대형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에 밀려 힘이 부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책방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는다. "골목에 서점을 낸 저를 용감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 골목까지 책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지 않지만, 가치를 우선에 둔 소비를 선택한 거죠."

우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 책을 찾지는 않는다. 책장을 손으로 만지며 넘길 때의 정서적 교감, 가지런한 서체와 디자인을 볼 때의 즐거움, 아름다운 장정의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의 행복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책은, 서점은 결코 죽지 않아요."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아날로그를 그리워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견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오늘도 화수동 골목을 지키킨다.

책방 모드 동구 화수로 47번길 14 ① 070-8877-1215

“아주 특별한 인천, 시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민선 7기 인천시정의 밑그림이 나왔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비전을 담은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이라는 5대 시정 목표와 20대 시정 전략, 138대 시정 과제가 담겼다. 시민 참여·소통을 시정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의와 소통, 협치와 혁신으로 이뤄나갈 인천시의 모습을 살피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언제나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민선 7기의 철학을 담았다. 시민사회,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로 주요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광역시 최초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또 2022년까지 연간 200억원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

※인천시정 4개년 계획이 나오기까지...

인천시는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 후, 실현 가능한 공약사항을 정비해 관련부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TFT)을 운영해 왔다. TFT는 상시적인 비공식 토론은 물론이고 시정 과제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시민정책 소통의 날, 500인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통해 20개 분야 138대 시정 과제를 선정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1	2	3	4	5
5대 시정 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20대 시정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 글로벌 물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 365일 안전 안심 도시 ·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 평화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시정철학



정의 · 공정과 투명



소통 · 대화와 협력



협치 · 참여와 자치



혁신 · 도전과 창의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다함께 잘사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함께 상생하며 잘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5호선 검단 연장, 7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인천~안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또 서해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친수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일하기 좋은 회사가 많아집니다”

시의 경제정책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과 복지가 함께 늘어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드림촌과 인천창업기금을 조성해 창업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기반으로 제2의 개항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노후 산업 구조고도화,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삶의 변화 체감하는 행복 도시를 만듭니다”

시민이 삶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보육과 교육, 맞춤형 복지, 양성평등, 노동,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공공산후조리원·공공돌봄나눔터·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세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쾌적한 환경, 시민이 건강한 클린인천 실현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평화의 씨앗으로 하나 된 미래를 준비합니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천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평화의 교두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대북 교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한반도 및 환황해 지역의 평화·번영을 선도하고,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천을 대북 교류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서해평화협력청·유엔평화사무국 유치 등도 함께 진행한다.

SLOGAN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선정한 인천시 민선 7기 슬로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인천시 민선 7기 슬로건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확정됐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시장 500여 명은 지난 10월 8일 시청 운동장에서 열린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행사에서 민선 7기 정책 방향과 슬로건을 선정했다. 시는 슬로건 선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 25%, 찾아가는 투표 25%를 비롯해 이날 진행된 현장 투표 50%를 반영했는데, 선정된 슬로건은 전체 2,038표 중 744표를 얻었다. 제안자인 서구 청라 주민 김소영 씨는 “시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 더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인천에서 가장 부족했던 정책으로 원도심 낙후, 지역 차별, 시민 시정 참여 등을 꼽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는 성장동력 혁신과 일자리 문제 해소, 미래 인재 육성 교육,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지역마다 비슷비슷한 여행 상품에 이제 질렸다. 하지만 도시 문화와 역사의 주체인 주민들이 함께 만든, 지역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관광 상품이라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여행 상품을 시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TOUR IN THE INCHEON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우리 동네 관광 상품, 시민이 만든다!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진짜 여행 상품'

지자체별 특징과 문화에 맞춰 해당 지역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독특한 여행지나 테마 여행 상품의 개발 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국내 여행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그 지역만의 고유 색깔을 살린,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관광 상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의 전통 설화, 명인, 특색 있는 체험 활동 등 그 지역민들이 알고 있는 매력적인 테마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개발, 운영하는 '군·구 테마여행상품 지원 사업-오감으로 즐기는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개 군·구가 참여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여행 상품을 개발 중이며, 연말에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만 알고 있는 지역의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인천만의 다양한 관광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특색 있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 스토리로 떠나는 개항장 테마 여행

중구는 지역 내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추진 중이다. 인천의 유일한 문화지구인 개항장의 박물관 및 전시관, 미술관 등을 관람하는 단순 관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 산재한 공방·카페와 연계한 체험, 미션 수행 등 체류관광개발에 힘쓰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볼거리, 공방에서는 즐길 거리와 살거리, 음식점에서는 먹거리, 카페에서는 휴식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 소상공인 공방, 카페, 한복집 등이 '상품공방조합'을 꾸려 개항장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통문화 체험 코스가 포함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인천공방협동조합은 현재 아트플랫폼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방협동조합 강명균 이사장은 요즘 관광객들은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원한다고 말한다. 중구는 앞으로 '우리 아이 인천 추억 만들어주기', '한국 근대사 체험하기', '커플 추억 만들어주기', '40~50대 문화체험여행' 등 다양한 스토리와 함께 체험 중심의 관광 상품을 브랜드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구] 전통 설화 '팽이부리 호랑이' 콘텐츠

동구는 만석동 전통 설화 '팽이부리 호랑이'를 바탕으로 캐릭터를 개발하고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팽이부리 호랑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미술관과 만석동 일원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캐릭터 개발과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및 동화책 편찬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이번 캐릭터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캐릭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서정화 박사는 관광 상품 개발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팽이부리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우리미술관은 문화예술 교육과 기획전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사랑방을 지향하고 있다.



[연수구]
능허대 스토리텔링

연수구는 백제 시대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한나루와 능허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화하고, 주민과 연수구 예술인이 협력해 뮤지컬과 인형극, 웹툰 등을 함께 만들고 있다. 특히 능허대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창출한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를 올해 능허대축제에 접목해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구는 또 공간에 대한 스토리 상품을 위해 지난해부터 ‘능허대 옛길’이라는 도보관광코스(약 5km)를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9년 조성 예정인 예술인 창작마을 내 입주 작가를 대상으로 능허대 스토리 문화 콘텐츠를 공공 프로그램 과제로 부여해 원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고택에 있던 책들을 보관하는 수장고

[미추홀구]
‘청춘스케치’ 젊음의 관광도시



미추홀구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물포 북광장에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아트공예마켓거리를 조성 중이다. 지역의 핸드메이드 작가와 학생, 제물포 상인이 참여해 올해만 15회 아트 마켓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물포역 북광장은 인천대학교 이전 이후에 상권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는 제물포 북광장을 ‘차없는거리’로 조성하고, 아트마켓 특화 광장으로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제물포는 전국에서 1km안에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내년 7월까지 제물포 지하도상가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다시 젊어지지 않을까요?” 임채익 미추홀구 관광문화팀장은 앞으로 제물포역 북광장을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놀이터로 조성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구]
가좌동 공단에 가려진 300년 역사기행

서구는 도시화의 진행에도 지역 주민의 든든한 지지로 300년 동안 자리를 지켜낸 고택을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을 준비 중이다. 코스모화학 뒤편 공장 지구에 있는 가좌동 고택은 코스모화학이 헐리고 주변이 정비되면서 옛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명 심재갑 고택이라 불리는 이 집은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청송 심씨 10대손 심공 한옹이 거주하면서 역사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40년에 개축하면서 압록강에서 백두산 소나무를 가져와 서까래와 기둥으로 사용했고, 영흥도에 있는 임경업 장군의 혈린 사당 기와를 배로 운반해 와 기와로 사용했으며, 개성 목수들이 나무와 나무를 엮어 개축했다. “고택은 가좌동의 상징적인 건물로서 서구는 고택 주인과 지역주민, 주변 사업체와 협력해 스토리를 발굴하고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구문화재단 김현주 팀장은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고택이 서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고택과 아트팩토리 ‘코스모 40’을 중심으로 1시간 내외의 투어 코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한다.





[부평구]
‘Up-down Street’



부평구의 테마 관광 상품은 ‘부평 Up-down Street’로, 부평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말 상가가 조성된 이후 현재 1,4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는 등 2014년도에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 수’라는 타이틀로 미국의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세계 기록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지하도상가와 요즘 뜨고 있는 ‘평리단길’의 트렌디한 공간을 콘셉트로,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 중이다. 현재 부평구는 부평문화원 및 지역 상인과 연계해 스토리를 발굴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게임과 AR(증강현실)을 통한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이다. 부평의 이야기가 담긴 애플리케이션 ‘부평 Up-down Street’를 실행해, 다양한 이벤트와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쌓으면 주변 상점에서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다.

[강화군]
보석같은 여행 도시, 어서오시겨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 성당, 소창 체험관, 조방방직, 강화관광플랫폼 등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강화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장소이자 과거 유·무형의 역사 자산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곳이다. 강화군은 원도심에 잠재되어 있던 문화적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활성화해 문화적 핵심 장소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을 상대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해 강화읍 중앙시장 A동 광장 일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거리(G로드 문화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먹거리와 농산물 직거래, 플라마켓,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려시대 대표적 인물이자 최고의 문호인 이규보를 비롯해 조선시대 정제두의 ‘강화학파’ 정신 등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를 소재로 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 시민 참여



우리 동네 숨은 여행지 찾기

중구
해안동1가 ①760-6488

- 개항장 소재의 마을 공방, 카페, 박물관, 전시관 등 숨은 명소를 찾아보고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등 중구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
- 가족, 한지, 도자기, 금속 공방 등 소규모 마을 공방 참여 및 체험 공방 조성

동구
화도진로 19번길 ①770-6102

- 동구의 전통 설화인 ‘괘이부리 호랑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힐링 여행
- 시민이 참여해 캐릭터 개발 및 동화책 편찬, 스토리가 있는 테마 거리 조성

부평구
부평대로 69 ①509-6425

- 부평지하도상가 등 쇼핑존, 인천시티투어 버스 코스의 지점별 역사, 문화, 상점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AR 게임 콘텐츠 개발



미추홀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 ①880-4763

- 제물포역 북광장에서 올해 9월~11월 아트마켓 운영
- 지역의 핸드메이드 작가, 학생, 상인 등으로 구성해 마켓 판매대 운영

서구
원적로7번길 1 ①560-5933

- 청송 심씨 일가의 고택인 ‘관해각’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있는 가좌동 골목 투어
- 주민들이 플라마켓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관광 어트랙션 발굴에 참여

연수구
능허대 옛길(문학산~능허대리) ①930-3561

- 한성백제 해외 교류의 창구였던 옛 한나루와 능허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 여행
- 백제사신길 도보 투어 코스 개발, 시민들이 직접 기획·연구하는 창작 인형극 및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 참여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중앙시장 ①930-3561

- 이규보 등 많은 시인들이 살았던 강화의 G로드 문화거리 탐방, 강화의 인문학 역사와 풍류 체험
- 주민 주도도 G로드 문화거리에서 문화공연, 매주 토요일 플라마켓에 상인들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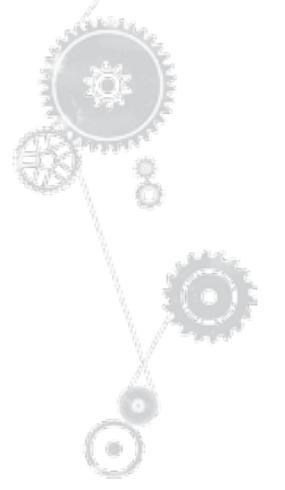
버려진 40번째 공장* 다시 가동하다



COSMO
40

때론 오래된 것이 더 새롭고 아름답다. 인천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 최초와 최고가 공존하는 도시다. 시간의 흔적을 보듬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들어가 본다. 서구 가좌동 옛 '코스모화학' 공장 지구. 사람이 모두 떠나고 기계 소리가 사라진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안엔 수많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이 배어 있고, 기계 소리보다 더 큰 삶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파란 하늘에 걸린, 회색빛 공장 굴뚝.
인천을 지탱해 온
'아름다운 땀'의 역사가 피어오른다.

공업도시, 인천

인천은 공업도시다. 1883년 개항 이후 작은 어촌에서 근대 도시로 몸집을 키웠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거대한 공장들이 들어섰다. 탐욕의 산물이었다. 광복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중화학 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단이 곳곳에 터를 잡았다. 그렇게 인천은 공업도시가 됐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꿈을 찾아 인천으로 왔다. 기계가 쉼 없이 돌아가고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배고픈 시절, 인천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인천이 거대한 공장 지구가 드리워진 노동자들의 도시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서구 가좌동 옛 '코스모화학' 공장 지구. 코스모화학의 전신은 1968년 2월 역사를 시작한 한국티탄공업(주)이다. 1971년 6월 인천 공장을 준공한 후 한국티타늄공업(주)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03년 현재의 이름을 얻었다. 40여 년 동안 힘차게 움직이던 공장은 2016년 6월 문을 닫고 울산으로 이전했다. 사람들이 떠나고 먼지 속에 침잠하던 폐허는 지난달 복합문화공간 '코스모 40'으로 다시 세상의 빛을 본다.

코스모화학 공장의 40번째 동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코스모 40'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폐공장을 다시 힘차게 가동한,
 코스모 프로젝트 팀의 심기보(좌), 성훈식(우) 씨.



거친 공단에 깃든 삶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 먼저, 사라지는 건물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에는 전성기가 끝난 공업도시에 남겨진 공장을 문화시설로 재생한 성공 사례가 많아요. 한국에는 왜 그런 공간이 없을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스모 40’을 기획한 성훈식(34) 씨는, 제 기능을 잃고 남겨진 인천의 공장들을 근대유산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성 씨와 함께 코스모 40 프로젝트에 의기투합한 심기보(39) 씨는 이 일대와 인연이 각별하다. 그의 집안은 13대째 서구 가좌동에 뿌리를 굳게 내려왔다. 공장 지구 한편엔 300년 된 심 씨 가문의 고택이 온전히 남아 있다. 그만큼 감회가 깊다. “우리 가족의 생활 터전은 바로 공장 옆에 있었습니다. 매캐한 화학물질 냄새가 풍기는 이 일대는 매력적인 개발의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 덕에 살아남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소외된 땅이었기에 속도가 알아갈 뻔한 풍경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헐리기 직전의 문 닫은 화학공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슬레이트로 마감한 외관은 누추해 곧 허물어질 것 같은데, 그 안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긴 세월을 버텨온 육중한 몸집의 단단한 공장 구조물. 마치 그 한가운데서 거대한 쇳덩이가 덜컥 소리를 내며 움직일 것만 같았다. 40여 년간 쉬지 않고 땀을 쏟아내면서 일대 주민들을 먹여 살린 곳이다. 삶을 지탱해 온 역사의 흔적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UNBOUNDED INSPIRING SPACE

기억해야 할, 노동의 역사

‘옛것은 지키고, 새것은 더 새롭게.’ 코스모 40의 건축 모토다. 이곳의 건축 방식은 예전 공장 건물에 새로운 건축물을 증축한 형태다. 대신 공장 건물과 남아 있던 구조물은 고스란히 살리고, 보조 기둥을 세워 새 건물이 옛 건물에 닿지 않도록 배려했다. 반짝이는 유리에 둘러싸인 현대식 건물과 투박하고 거친 공장의 조화가 묘하게 마음을 잡아끈다. 과거와 현재가 극명하게 나뉘지만, 공간과 공간은 하나로 이어진다. 신축 로비에 들어서면 공장 안이 훤히 내다보인다. 새로운 공간에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공장 건물 자체가 갖는 확장성도 크다. 1~3층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고, 그 위에 올라서면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이산화타이타늄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기능적인 공간이에요. 한때 이 안을 가득 채운 기계들이 맞물려 움직이도록 설계됐지요. 지금 공간은 제 기능을 잃고 텅 비었지만, 대신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해 냈어요.” 심 씨는 이곳이 복합문화공간의 의미를 넘은 ‘대공간’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뛰어넘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밑그림을 그렸다면 색을 칠하는 건 문화예술가와 기획자, 주민 여러분의 몫이에요.”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쉽 없이 돌아가던 인천의 많은 공장이, 지금 가동을 멈추었다. 도시 재개발의 바람 속에 산업화 시대의 흔적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다. 공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천편일률적인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세워지고 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공장도시’라는 인천의 정체성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요. 하지만 인정하고 매만지면 인천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어요.” 심 씨의 집안은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공단 한복판을 지켜왔다. 인천을 지탱해 온 ‘아름다운 땀’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공단 지대를 나서는 길, 가을 하늘에 회색빛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이 걸려 있다.



전기를 가동해 공장을 움직이던 기계. 이 또한 귀한 근대유산이다.(위) ‘옛것은 지키고, 새것은 더 새롭게.’ 코스모 40은 예전 공장 건물에 새로운 건축물을 증축한 형태다.(아래)



information
 코스모 40
 서구 장고개로 231번길 10
 ☎010-2334-8862
 🌐www.cosmo40.com

여우각시별

드라마 시티 인천

탄탄한 스토리와 쟁쟁한 배우들의 출연으로 방송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던 SBS 드라마 '여우각시별'이 지상파 월화극 1위를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이 드라마는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드라마라는 점 때문에 시선을 모았다. 공항에서 드라마 촬영 장면을 봤다는 목격담이 SNS에 자주 등장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속 인천국제공항 모습을 살펴봤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삼화네트웍스

나를
기억한다면
너를
관심하다



드라마 '여우각시별'은 비밀을 가진 의문의 신입사원 이수연(이제훈 분)과 애뜻한 사연을 가진 사 고몽치 1년 차 사원 한여름(채수빈 분)이 인천국제공항 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서로의 결핍과 상처를 보듬어 나가는 휴먼 멜로드라마다. 이를 여정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배경으로 드라마 탁하게 펼쳐 보인다.

지금껏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첫 방 영부터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여행의 설렘과 낭만의 장소인 공항이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일터이고 숨 막히는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점,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공항의 이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드라마 중간마다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는 강은경 작가가 직접 인천국제공항 상주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드라마에 현실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방을 사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SCENE

#1

승객의 편의를 위해 오늘도 달린다

공항에 막 입사한 '갓신입' 이수연과 1년 차 한여름은 공항 곳곳의 부가시설물을 관리 하거나 여객 편의시설 및 수하물 카트 운영, 특수 여객 지원 등을 담당하는 여객서비스팀 직원으로 온갖 사건사고를 맞닥뜨린다. 특수한 승객을 찾기 위해 넓디넓은 공항 을 전력 질주하는 등 매 회 생동감 넘치는 '리얼 에피소드'를 선사, 몰입도를 높인다. 제2여객터미널(T2)로 사무실을 옮기던 첫 날, 로봇처럼 딱딱한 표정의 이수연은 "먼지, 먼지" 하며 자신을 따라오는 진짜 '로봇' 청소기에 당황하고 만다.

→ 귀여운 청소 로봇 외에도 인천국제공항에는 올해 첫선을 보인 지능형 안내 로봇 '에어스타'가 있다. 에어스타는 체크인 카운터, 출국장 혼잡도 정보, 보안검색 절차와 기내 반입 물품 등 공항 이용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SCENE

#2

공항에 폭탄이 설치됐다!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 한 통화로 사건은 시작된다. 장난 전화일지도 모르지만, 아닐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어떤 경우도 안심할 수 없다. 결국, 공항에 비상이 걸린다. 얼마 뒤,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인 없는 가방을 발견하고 보안팀에 신고한다. 보안팀은 즉시 출동해 펜스를 치고 폭발물 처리반(EOD)을 부르고 가방을 조사한다. 다행히 가방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 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보안실은 보안검색팀, 보안계획팀, 테러대응팀, 보안경비팀, 보안장비팀, 출입증관리센터로 구성돼 있다.



SCENE

#3

이수연, 진상 고객에게서 여름을 구해내다

T2 셀프 체크인 기계 앞. 여름은 항공사 직원과 여객 사이의 실랑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지만, 잔뜩 흥분한 진상 고객은 셀프 체크인 기계 3대를 부수면서 난동을 부린다. 다시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없어 꼭꼭 참으며 응대하는 여름에게 진상 고객이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 수연이 그 상황을 막아준다. 한여름은 뒤늦게 이수연이 같은 부서 직원임을 알게 된다.

→ T2는 무엇보다 화물 처리와 입출국 수속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성을 우선시한다. 셀프 체크인 기계와 셀프 백드롭 기계를 이용해 직접 티켓을 발권하고 짐을 부칠 수 있다.



SCENE

#4

위험한 순간, 괴력을 발휘하다

이수연은 공항 내에서 캐리어가 가득 담긴 운송용 카트를 한 손으로 막고 한여름을 내리치는 펜스 역시 팔로 걷어낸다. 과거, 한여름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위험한 순간에도 한 손으로 그들을 덮치려는 차량을 막아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오른팔에 웨어러블을 착용하면서 괴력을 발휘하게 된 이수연. 웨어러블의 원리와 어마어마한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 잠깐! T2에서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KLM 네덜란드항공', '에어프랑스'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중화항공', '체코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추가로 이전, 운항하게 되었다. T1과 T2는 셔틀버스로도 족히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항공사별 탑승장소를 혼동하면 난감해질 수 있다. 아무리 초인적인 이수연도 이런 낭패스러운 순간은 어찌지 못할 듯.



SCENE

#5

아빠는 그곳을 '여우각시별'이라 불렀다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맥주 한잔하며 각자 공항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말한다. 제복 입는 일을 하고 싶었던 오대기(김경남 분)와 유독 특기생이었던 나영주(이수경 분), 연봉에 꽂힌 고은섭(로운 분), 그리고 아빠 덕분에 공항 근무를 결심하게 됐다는 한여름. 그래서 여름에게 공항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아빠, 내가 일하는 이곳도 매일매일 별들이 내려. 매일같이 별들이 내렸다가 떠나는 곳, 아빠는 그곳을 여우각시별이라 불렀다.'

→ 그림 같은 공항의 야경을 고스란히 만끽하며 맥주 한잔 즐길 수 있는 이곳은 T2 4층에 위치한다. 다만, 에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인천 VS 세계 도시

⑩ 아트센터 인천 VS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ARTCENTER INCHEON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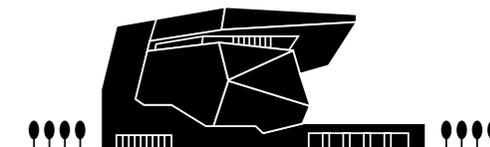
SYDNEY OPERA HOUSE

아트센터 인천

바다와 육지 사이, 문화예술이 물결친다

푸른 바다를 조망하며 신세계 교향곡의 선율을 만끽하는 즐거움.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있는 아트센터 인천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공통점이다.
문화공간을 넘어 도시의 랜드마크로 비상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경험에서
아트센터 인천의 미래를 본다.

글 허은광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 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셔터스톡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드디어 개관

아트센터 인천이 오는 16일 정식 개관한다.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콘서트홀은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2단계 공사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주거단지 개발 이익금이 줄어들면서 공사의 중단과 개발이 반복되었고, 콘서트홀의 기부 채납에 따른 갈등 때문에 순조로운 공사의 진행과 개관 준비가 지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면적 5만1,977㎡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7층, 1,727석을 자랑하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예술 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 이어 한국의 3대 콘서트홀로 비상할 채비를 마쳤다. 시민을 위한 품격 높은 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더불어, 국제적 수준의 콘서트홀 운영을 통해 인천의 도시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ARTCENTER INCHEON

아트센터 인천

개관	2018년(시공 2009년)
규모	연면적 5만1,977m ² , 높이 43m
주요 시설	콘서트홀 1,727석
건립 비용	2,600억원

V S

SYDNEY OPERA HOUSE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개관	1973년(시공 1959년)
규모	건물면적 5만8,000m ² , 높이 65m
주요 시설	콘서트홀 2,679석, 오페라 시어터 1,547석
건립 비용	1억200만 호주달러



자연과 어우러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호주의 수도를 묻는 말에 시드니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과 문명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에 답이 있는데, 오페라하우스가 대표적이다. 시드니 항구 끝자락 베넬롱 포인트에 우아한 자태로 누워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허버 브리지와 더불어 시드니 항구를 세계 3대 미항(美港)으로 끌어올린 기념비적 랜드마크다. 조개껍데기 형상의 오페라하우스가 바다 위의 돛단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형상은 바다를 잇는 전망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의 손을 닮은 아트센터 인천과 견줄 만하다. 오페라하우스 주변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이 할리우드를 비롯한 초대형 영화촬영 장소로 사랑받듯이, 로케이션 촬영지로 각광받는 송도의 트라이보울(Tribowl)과 더불어 아트센터 인천 또한 국내외 영화·영상 관계자들의 필수 방문지로 주목받길 기대해 본다.

세계적 문화 공간, 역사적 유산으로

1957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설계 공모의 주인공은 덴마크의 젊은 건축가 예른 웃손(Jørn Utzon)이었다. 오펜지 껍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웃손의 디자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탓에 1973년 완공까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더구나 애초 예산보다 10배가 넘는 건축비 때문에 주정부는 복권을 발행해야 했고, 설계자 웃손은 공사 도중에 쫓겨나는 수모 끝에 준공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관식에 참석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오페라하우스의 건축적 성과를 4,000년 전의 피라미드와 견줄 수 있다는 극찬으로 미래의 성공을 예측했다. 주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오페라하우스는 2003년 뉴사우스웨일스의 문화유산(State Heritage)에, 그리고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에 등재되었다. 아트센터 인천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비전을 고민하고 성장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 수준의 콘서트홀은 단순한 공연 관람의 기능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기도 하며 때로는 역사적 유산으로 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 인천의 미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는 2,679석의 콘서트홀과 1,547석의 오페라 시어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규모의 드라마 시어터, 브로드워크 스튜디오, 플레이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다. 연간 3,000회가 넘는 공연의 일부는 이곳에 상주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극단, 시드니 극장단, 시드니 교향악단이 담당한다.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과 더불어 서점, 도서관, 갤러리, 커피숍,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이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니, 그 경제적 효과는 놀라울 따름이다. 아트센터 인천도 콘서트홀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이 들어서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합쇼핑공간 아트포레 단지를 비롯한 관람객 편의시설이 건립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대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라는 프리미엄에 힘입어 국제적 관광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 트렌드를 리드하겠다는 비전을 세운 아트센터 인천이 북반구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도약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화가가 된 약국집 막내딸

고제민

사진 김보섭 | 글 유동현



‘엄마가 된 바다’. 지난해 이맘때 책(화집) 한 권을 건네받고 제목을 되뇌었다. 영어 ‘Mother’와 바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Il Mare(일마레)’는 어원이 같다고 한다. 거칠게 붉고 푸른 색조의 바다로 짝 찬 화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엄마’를 곧 알아챘다. ‘엄마’는 화가 자신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물에서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바다로 돌아왔다. 아니 그 자신이 바다가 되었다.

화가 고제민(58)을 만나러 동구 금곡동에 있는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에 들어섰다. 그는 이 학교 미술 선생님이다. 본관 3층에 있는 미술실에서 차 한잔을 마셨다. 물감통, 팔레트, 크고 작은 붓들이 커다란 책상 위에 가득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이 공간에서 자신의 작품을 구상하고 캔버스에 색을 입힌다.

일주일 전 그는 학생들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학생들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다. 그는 내년 2월 명퇴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로 나서기로 맘먹었다. 2년 전 학교 밖 중구 개항장 부근에 개인 작업실을 마련해 놓기도 했다. “영화학교 귀신이 되기 전에 나가야죠.”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이 학교에 부임해 35년을 근무했다. 운동장을 함께 쓰는 영화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 도합 41년을 ‘영화’의 울타리에 있었다.

그는 약국집 막내딸이었다. 남구 송의동 403번지 독갑다리 경인약국 육 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인천 최초의 도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다. 아버지는 금융업 관련 일을 했다.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작은 은수저 하나는 물고 태어났다. 그 시절 여유 있는 집안의 자식 중 한 명은 ‘예술’을 하기 마련이었다. 약국집 막내딸은 그림 그리기를 택했다. 옆집 목욕탕 2층에 당시 인천에서 유일한 화실이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젊은이들이 드나들던 아지트였다. 어린 고제민은 자연스럽게 24색 크레파스를 손에 쥐었고 그림 붓을 들었다.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유학을 갔다. 서울예고와 덕성여대를 졸업했다. 교단에 서서도 자신의 붓을 놓지 않고 틈틈이 소품이라도 그렸다. 2011년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첫 개인전 ‘색을 벗다’를 열었다. 거친 붓칠로 누드를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인체를 그리는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때부터 작가 정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걸치레를 벗어내면서 인천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7년 동안 인천의 골목, 포구 등을 소재로 한 그림을 무려 150점가량 그렸다. 그는 그림을 가둬놓지 않았다. 지역 매체에 적극적으로 게재했다. 그 덕에 ‘인천을 그리는 작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휴대전화에 내년도 계획이 빼곡하다. 그중 내년 2월, ‘잇다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청년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영아트페스티벌’이 눈에 띈다. 그는 이 전시회를 총괄 기획한다. 그동안 그림을 그리는 데만 힘을 쏟았다. 교사의 짐을 벗은 후에는 기획자로서도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

인터뷰를 마치고 미술실을 나서다 한쪽의 칸막이 안을 슬쩍 보게 되었다. 비닐 포장지에 싼 표구 그림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다. “저거 다 시집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그는 그림을 그리기만했지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았다. 이제 전업 작가로서 전시장에서 누군가 자신의 작품에 딱지를 붙여 ‘찜’하는 행복을 느끼고 싶다.

화집 제목 ‘엄마가 된 바다’는 영문으로 ‘Sea of Old Lady’로 번역되었다. 육십을 바라보는 ‘올드 레이디’ 고제민은 소녀의 눈동자를 가졌다. 앞으로 그 눈에 어떤 인천이 담길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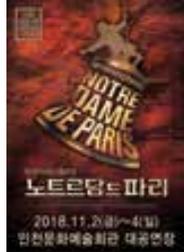
CULTURECALENDAR

11

02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 버전 10주년 -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4일(일)까지 공연
2일(금) 오후 7시 30분
3일(토) 오후 3시, 7시
4일(일) 오후 2시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 1566-6551



스테이지149 - 어린이 명작무대2 ‘슈퍼맨처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3일(토)까지 공연
2일(금) 오전 10시 30분
3일(토)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2만원
☎ 1588-2341

03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R석 2만원, S석 1만5,000원
☎ 551-6602

04

2018년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제19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833-2080

선데이 콘서트-트리오 아일랜드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전석 1만원
☎ 289-4275

06

인천시립합창단 기획연주 청소년문화체험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438-7773

SAC ON SCREEN 발레 호두까기 인형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무료
☎ 460-0560



07

인천교사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438-6040

08

2018 이은주 무용단 레퍼토리 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835-8621

09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119축제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30분
무료
☎ 870-3013

소중함을 찾아 떠나는 음악극 ‘PRIZE’

부평문화사랑방
오전 10시
전석 7,000원
☎ 505-5995

10



2018-2019 양희은 전국 투어 콘서트 ‘뜻밖의 선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12만1,000원, R석 11만원,
S석 9만9,000원, A석 7만7,000원
☎ 1688-6675

제2회 인천 춤 풍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원
☎ 865-5474

안소이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 289-4275

11

제4회 라온피아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 434-7333

13

하나 되어 부르는 ‘합창’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2-588-9954

15

인천 남성합창단 제51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326-7603

16

2018 밴드데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 18일(일)까지 공연
16일(금) 오후 8시
17일(토) 오후 6시
18일(일) 오후 5시
1일권 3만원
☎ 1588-2341

연극배우 박정자 낭독 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5,000원
☎ 500-2000

17

2018 조용필 & 위대한 탄생 5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 ‘Thanks To You’

인천 삼산 월드컵체육관
오후 7시
VIP석 15만4,000원, R석 13만8,000원,
S석 11만원, A석 9만9,000원
☎ 02-541-7151



17

인천합합 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440-4014

미술사 최현우의 ‘WIZARD’

남동 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460-0560

우리가족 토요일 N클래식 시리즈 V ‘해천추범 - 양들의 혁명’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전석 6,000원
☎ 505-5995

전통타악 아작 ‘장구free’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무료
☎ 551-6602

20

팝페라 -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899-1517

21

2018 커피콘서트9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천년의 음악여행’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2

‘황천’ 파트2 - 님아 그강을 건너블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10-8745-4852

22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비가(悲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24일(토)까지 공연
22일(목) 오후 1시 50분
23일(금) 오후 8시
24일(토) 오후 5시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1588-2341



양희경과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 가족, 하나로 연결된 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000원
☎ 500-2000

23

팝페라로 전하는 온가족 감성 콘서트 ‘가을편지’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24

박현빈 윤수현 힐링가요콘서트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 551-6602

25

2018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30분, 7시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 070-4618-6012

27

2018년 책, 피아라 인문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무료
☎ 440-3972

28

2018 이은미 콘서트 ‘WINTER & FALL’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8만원,
A석 7만원
☎ 500-2000



마티네콘서트 마실 아카펠라로 읽는 문학 명작 - 그 여자네 집

남동 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3,000원
☎ 460-0560

제나탱고의 Sweet Tango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579-1150

30

인천시립합창단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2,000원
☎ 1588-2341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7,000원
☎ 505-5995

이달의 展

탁영조, Thanks! Gravity
11월 2일(금)~15일(목)
갤러리 다솜

서연희, 서예, 서각, 한국화 합동 전시회
11월 2일(금)~15일(목)
갤러리 나무

이선희 개인전
11월 03일(토)~16일(금)
갤러리 지오

사전전 - 어느 멋진 날
11월 3일(토)~24일(토)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인천의 재발견 섬과 국제 도시
11월 9일(금)~15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소 전시실

제36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11월 9일(금)~15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 전시실

2018 인천섬기행전
11월 16일(금)~2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전시실

2018 명아트크루전
11월 16일(금)~22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전시회
11월 17일(토)~23일(금)
갤러리 지오

제11회 사진집단인 정기전시회
11월 20일(화)~29일(목)
갤러리 나무

제6회 연화회 회원전
11월 20일(화)~29일(목)
갤러리 다솜

인천 서각 오케스트라 2018
11월 23일(금)~29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 전시실

2018 청소년(수험생)들을 위한 ‘한 시간에 보는 한국 미술사전’
11월 23일(금)~29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

최 철 개인전
11월 24일(토)~30일(금)
갤러리 지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특별한 공연 문화도시, 평화도시를 향한 꿈

수준 높은 문화공간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예술은 우리의 일상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한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아트센터 인천'이 개관 기념 공연으로 문화도시 인천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주도로 개최된 '평화도시 어울림 축제'는 세대와 계층 간 통합, 남북한 평화협력시대를 향한 인천시민의 바람이 담겼다.

시민이 준비한 축제, 평화도시 어울림 축제

예술의 일상화. 평범한 일상 속 행복을 더하는 예술이야말로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인다. 인천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짝꿍 프로젝트가 원도심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저 관람에 그치는 수동적인 문화생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화 욕구를 충족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색깔의 동아리들이 서로의 짝꿍이 됐다.

'평화도시 어울림 축제'는 그들이 만든 작지만 울림이 있는 행사로 지난달 27일 첫 공연을 마쳤다.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늦가을 인천시민의 감성을 적셔줄 것이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공연팀은 총 5팀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평화도시 타악 퍼포먼스팀은 멤버 전원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올해 전국 규모의 스페셜K 국악 부문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실력파다.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 하모니카팀은 이상윤 목사(행복한교회)의 지도로 고령의 장애인과 목회자 등 노인 5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새별푸전양상블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통합팀으로 해금의 명인과 기타리스트, 장애 자녀의 어머니인 오카리나 연주자,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와 자폐인 플루트 연주자가 펼치는 협연이 기대된다. 오카리나 및 우쿨렐레연합팀은 멤버 전원이 주부다.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주부 동아리가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영종예술단 보컬팀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보컬 동아리로 평화도시 어울림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일시 11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어울림한마당문화센터(부평구 심정동 481-9)
홈페이지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www.dpnews.or.kr
문의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①751-1823

시민을 위한 클래식 공연, 아트센터 인천 개관 기념 공연

'아트센터 인천'이 오는 16일 개관한다. '아트센터 인천'은 지하 2층, 지상 7층, 1,727석 규모로 촉박 반사음 효과를 극대화한 음향 설계와 내외부 소음·진동 차단 시설로 미세한 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의 폭넓은 문화 관람의 기회가 될 이번 아트센터 인천 개관을 기념해 16일과 17일 수준 높은 두 개의 공연을 준비했다.

개관 첫 공연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연주단체인 인천시립교향악단이 무대에 오른다. 인천시향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병욱과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텔 리, 소프라노 이명주, 테너 김동원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기량을 뽐낸다. 인천시민과 함께 개관을 축하하고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로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내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110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문 악단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거장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 그리고 클래식계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조합으로 관심을 모은다.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아트센터 인천'의 진가를 이날 직접 느껴보자.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 기념 공연 1

공연명 인천시립교향악단&이병욱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오후 4시
가격 전석 초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착순 신청 접수
신청 아트센터 인천 @www.aci.or.kr
장소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연수구 송도동 80-9)
문의 아트센터 인천 ①453-7700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 기념 공연 2

공연명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조성진
일시 2018년 11월 17일(토) 오후 5시
가격 R석 18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5만원, C석 2만원
예매 아트센터 인천 @www.aci.or.kr,
인터파크티켓 ①1544-1555 @ticket.interpark.com
장소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연수구 송도동 80-9)
문의 아트센터 인천 ①453-7700

NEWS BRIEF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 발표



© 사진 홍승호

민선 7기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공개됐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25일 중구 제물포구락부에서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구상해 온 원도심 활성화 사업 중 2019년부터 추진 가능한 선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에 주력한다. 제물포구락부, 옛 인천시장 관사, 일본-중국식 주택 등을 카페, 인문학 강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축 중인 누들플랫폼을 중심으로 주변 골목과 연계한 아시아 누들타운을 조성한다. 동구 금곡로 옛 동인천우체국에는 성냥공장 마을 박물관이 들어선다. 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대를 인천의 대표적인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승기천·굴포천·수문통은 생태하천으

로 복원한다. 시는 승기천이 복원되면 서울 청계천처럼 도심의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광역철도·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 사람들이 모이는 원도심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철책과 공장에 가로막힌 인천 앞바다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다. 한편 시는 허중식 균형발전전문부시장(사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도심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원도심 재생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재생정책과 ☎440-4502

‘가을이 왔다’ 공연 인천 유치 가속도

평양을 다녀온 박남춘 시장이 북한 예술단 남측 공연 ‘가을이 왔다’의 송도 유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8일 시청에서 열린 방북결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4~6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당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 서해5도 공동어로 사용 문제, 한강하구 이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설명했다. 또 국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와 남북 민속촌 건립,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남북 정상들의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인천이 실천의 중심에서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향후 연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대변인실 ☎440-3066

‘복지 기준선’ 2020년까지 설정

우리 시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뜻하는 ‘복지 기준선’을 설정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연내 출범 예정인 인천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사회적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복지 기준선을 2020년까지 설정할 방침이다. 시는 복지 기준선 사업이 다양한 계층의 사회통합의 과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개설해 여론을 청취하고 권역별로 시민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시 공감복지과 ☎440-2912

복합문화단지 ‘인천 뮤지엄 파크’ 본격 시동



우리 시는 옛 동양화학 부지에 들어서는 ‘인천 뮤지엄 파크’(가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월 19일 ‘인천 뮤지엄 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 공헌 부지 내에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산업 시설 등으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 뮤지엄 파크 사업은 시립미술관 건립, 기존 인천시립박물관 확장·이전과 전시공연·영상 등 다양한 시설이 담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문의 : 시 문화콘텐츠과 ☎440-3997

‘7호선 청라 연장’ 2027년 개통

© 사진 류창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의 개통 목표 연도가 오는 2027년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하면서 재원 조달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2년 착공, 2029년 개통 일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는 교통

현황과 수요 예측, 건설·운영 계획,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7년 완공·개통 일정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내년 4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본 계획안을 지난 10월 24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서면·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 문의 : 시 철도과 ☎440-3912

민간 자본으로 무주골 공원 조성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되던 땅들이 민간 자본 유치에 힘입어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우리 시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인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무주골파크는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부지 12만㎡가운데 70%에 이르는 8만5,000㎡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886가구,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한편 무주골파크는 총사업비 2,69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공원녹지과 ☎440-3658

‘자살 예방’ 생명사랑 택시 220대 추가

우리 시는 지난 10월 24일 시청에서 택시기사 220명을 제2기 ‘생명사랑 택시기사’로 위촉했다. 생명사랑 택시기사는 생명 존엄을 지키는 착한 택시라는 표식의 스티커를 붙이고 “죽고 싶다”는 등의 극단적인 말을 하는 손님에게 정신건강 리플렛을 건네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작년 제1기 생명사랑 택시 172대가 활동을 시작했고 우리 시는 2017년 자살 예방 시행계획 우수 지자체로 뽑히며 6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문의 : 시 건강증진과 ☎440-1584

내 집 주차공간 ‘그린파킹’ 사업 확대

우리 시는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그린파킹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5년간 23억원을 들여 약 500면의 그린파킹 주차면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하며 1면 설치비용 지원금을 5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문의 : 시 교통관리과 ☎440-3922



NEWS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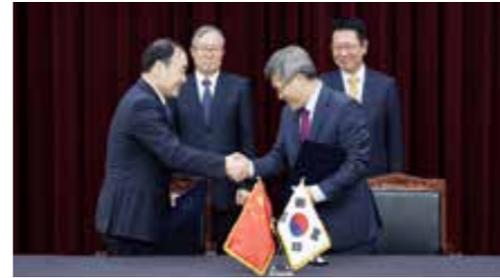


© 사진제공:환경부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자연마당' 조성

우리 시는 인천 내륙 지역에 남아 있는 최후의 폐염전 지역인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원 내 습지와 그 주변 일원 5만㎡에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

텐진시와 우호협력 강화 협약 체결



우리 시는 지난 10월 26일 중국 텐진(天津) 시와 자매도시 25주년을 기념해 상호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남춘 시장과 리홍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

분야 학술교류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호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두 도시는 25년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상호 지속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의 과제를 선정...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인천광장' 준공

우리 시와 우호 도시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시타트에 '인천광장'이 조성됐다. 내년에는 '인천공원'도 문을 연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핀란드만(灣) 코틀린섬에 있는 크론시타트에서 인천광장 개장식을 가졌다.



장난감 무료대여 '도담도담'... 택배 서비스

내년부터 택배로 아이들 장난감을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우리 시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장난감·도서·영상자료 등을 빌려주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내년부터 택배 서비스를 도입한다.

계양산 골프장 사업 전면 취소

롯데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최종심에서 계양산 골프장 행정 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개장



인천대공원은 1일 온 가족이 자연을 만끽하며 쉴 수 있는 '너나들이 캠핑장'을 개장한다. 인천대공원 내에 조성된 '너나들이 캠핑장'은 3만 1,687㎡ 규모로 103면의 야영동과 가족 단위 쉼터를 비롯한 화장실, 샤워실, 식수대 등 기본 시설, 매점과 관리사무실을 포함한 4동의 건물...

원도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우리 시가 원도심에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너지자립마을이란 마을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해 주민이 부담하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사업이다.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 무상 취득

쓰레기 수송도로의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넘어왔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29일 서구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길이 12.34km,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 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136필지 38만5,556㎡, 771억원)'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등기 이전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11월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참여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내년 예산 10조 돌파...사회복지 비중 가장 커

우리 시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시는 지난 10월 26일 10조1,0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한 규모다.

도시 재생사업 291억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200억원 등이다.

우리 시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시는 지난 10월 26일 10조1,08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한 규모다. 시는 열린 시장, 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시민 행복, 평화 번영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생산 단계의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다소비 품종인 민물장어, 힌다리새우, 김, 굴 등 14개 품종에 대해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 재생사업 291억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200억원 등이다.

성장동력 확충사업에는 일자리 창출 968억원, 청년·창업 165억원, 혁신성장 지원 325억원 등 79개 사업에 3,007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3조2,55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시민행복 분야는 중·고생 교복지원 43억원, 산후 도우미 지원 확대 70억원, 시민안심보험제도 도입 7억원, 기초연금 6,665억원, 기초수급자 2,827억원, 아동수당 1,453억원 등 복지정책이 주가 된다.

IFEZ NEWS

영종지구→영종국제도시로 명칭 변경

인천경제청은 영종지구의 명칭을 ‘영종국제도시’로 변경했다. IFEZ의 3개 지구 가운데 청라지구가 지난 2011년, 송도지구가 2014년 각각 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영종지구는 그동안 지정 당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영종지구의 경우 현재까지 ‘지구’ 명칭을 사용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 간 사용 명칭이 달라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각 유관부서에 명칭 변경에 대해 통보하고, 공문서상은 물론이고 각 홍보물 등에 ‘국제도시’라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독일 머크, 송도에 생명과학 운영본부 설립

독일 과학기술 기업 머크(Merck)의 한국 생명과학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본부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머크의 한국 자회사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송도국제도시에서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 착공식을 열었다. 머크가 260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에 세포배양 배지를 공급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본부 부지 면적은 1만141㎡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319㎡ 규모로 2019년 5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IFEZ, ‘개청 15주년 비전·전략’ 발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지난 10월 15일 개청 15주년을 맞아 ‘IFEZ 비전·전략’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세계 최대의 바이오·헬스 단지를 조성하며, 오는 2030년까지 국제지구 35개를 유치하는 등 ‘아시아의 브뤼셀’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IFEZ 비전·전략은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Global Business Frontier)’ 비전 아

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레저 허브, 스마트시티 등 5대 목표로 구성됐다. 또 글로벌 경제 플랫폼, 서비스 산업 허브, 융복합 산업 허브, 컴팩&스마트시티로 4대 실천 전략을 구성하고, 공항·항만 경제권 육성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바이오·헬스케어 확대단지 조성,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조성 등 15개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1단계 입주식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25일 송도 재미동포타운 1단계 사업 준공과 함께 입주 행사를 진행했다.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미주 이민역사의 출발지인 인천 제물포로 귀환하려는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재미동포들의 고국 내 정주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됐다. 재미동포타운 1단계 사업은 49층 규모의 아파트 830세대, 오피스텔 125실과 상업시설 113실을 건축했다. 한편 2단계 사업은 70층 규모로 아파트 498세대, 오피스텔 674실 및 상업시설 1만9,047㎡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10월 준공 완료 시 송도국제도시 내 주거용 건축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티스, 인천 송도에 R&D센터 착공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회사인 ‘오티스’ 연구개발(R&D)센터와 생산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12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오티스 연구개발센터·첨단생산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적인 패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22일 송도 지식정보단지에서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최병오 패션 그룹 회장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센터는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송도동 11의 2) 1만2,501㎡ 규모 부지에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3층) 등으로 구성돼 조성된다. 주요 시설은 패션 관련 소재, 디자인, 글로벌 마케팅 등 R&D 센터와 패션 인재 양성 교육연수 시설 등이다.

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오티스는 송도국제도시 인천대학교 캠퍼스 맞은편 1만5,600㎡ 부지에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개발센터 등을 준공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IMAGE NEWS

인천이 다시 꿈을 꾸다!

5

[인천시 5대 시정 목표]

- ① 시민 참여와 협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 ②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시재생,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 ③ 산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 ④ 공정하고 안전한 복지사회, 내 삶이 행복한 도시
- ⑤ 남북교류와 서해 평화,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인천시 시정 목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수립한 시정 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는 것

01

함께 약속한 미래, 공약을 현실로!

[목표를 향한 시정 과제]

-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보완, 재구성해 시정 과제화
- 5대 시정 목표를 20대 시정 전략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8개 시정 과제로 세분화

138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각 시정 과제를 #실행·책임질 #주관 부서 선정 및 업무 분담

02

꿈을 이루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16,000,000,000,000

- 시정 과제 진행을 위해 예산 약 16조원 필요
- 이번 시정부 임기 내 약 9.8조원 소요 예상,
- 이 중 국비와 민자 투자 등을 제외한 시비는 약 1.7조원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한 21건을 제외한 #117건 시정 과제에 #예산 책정. 신속하고 효과적인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 시 #법령 제·개정 등의 #입법 추진 병행

03

새로운 시대, 꿈★은 이루어진다

7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일곱 번째 시민 정부]

-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신기술 산업의 시대
- '사람이 먼저'인 소통과 협치의 시대

#민선 7기 시정부는 #정의 #소통 #협치 #혁신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동북아 평화번영 시대에 맞는 #새로운 꿈을 품습니다.

04

COUNCIL NEWS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 등 3가지 의정 목표 아래 출범한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을 맞아 지난 10월 8일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이날 개원 후 성과 보고를 하며 “집행부 견제, 시민 소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2일 개원 이후 2회에 걸쳐 37일간 회의를 운영하면서 예·결산안 47건, 조례안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 100일간 80여 개 안건 처리

33건, 동의안, 건의안 등 총 8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상생연구회 등 정책 현안별로 3개 연구 단체도 구성했다. 시의회는 특히 시민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2회에 걸쳐 현장 31곳을 방문해 현안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토론회와 간담회를 7차례 실시해 여론 수렴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54명, 5개 분과로 이루어진 의정 모니터를 구성해 불편사항 34건을 개선했다. 의정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방문, 배식봉사 등 4회에 걸친 현장 봉사도 진행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찬회 실시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틀간 전체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 연찬회는 제8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연찬회로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간에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 프로그램은 의원들이 알아야 할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사례 및 성인지예산제도(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등 전문 강사의 강의로 이뤄졌다. 또한 만찬 간담회



를 통해 의원 간 자유롭게 소통하며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범 의장은 “전체 의원 연찬회를 열어 상호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됐다”며 “공정·투명, 현장, 협치 의정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회정협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

시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회정협의회 등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분권 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

역의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용범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주제로 정책 보좌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양산 골프장 건립 무산 환영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이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계양산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가 수년간 벌인 법정 공방이 끝났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시와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조성 사업을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계양산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용범 의장은 “이번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정아카데미 본회의 체험교실 운영

인천남중학교 학생 38명과 인천초은중학교 학생 37명이 지난 10월 19일 시의회가 개최한 의정아카데미 본회의 체험교실에 참가해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이날 행사 참여를 통해 본회의의 회의 진행을 방청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송도 G-Tower에서 ‘제4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시민단체, 학계 및 기업대표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되어 2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조사, 정책자료 제공 및 대안 개발,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문위원 30명,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이 보고됐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제8대 인천시의회 열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의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 시의회는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증인과 참고인 469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총 1,270건의 자료를 신청했다. 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 위법 사항,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모두 448건으로 이 중 시정 요구사항 23건, 처리 요구사항 220건, 건의사항이 205건 등이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의회저널’은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 의회사무처 ☎ 440-6137~8
홈페이지 : www.icouncil.go.kr

INFO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기 -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슬로건 시민 공모

2019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인천이 선정됨에 따라 한·중·일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기간 : 10월 16일(화)~11월 16일(금)

접수 기간 : 11월 5일(월)~11월 16일(금)

발표 : 12월 12일(수)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의 : 시 문화예술과 ㉠440-4023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지정하고 이를 근절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내용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 물질 소지, 구멍조끼 미착용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이 우리 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세계 100개국 1,5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 11월 27일(화)~29일(목)

장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홈페이지 : ㉡www.oecd-6wf.go.kr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집 분야 : 자율형건물번호판 도입 사례, 도로명·건물번호를 상호로 활용한 사례, 아름다운 도로 이야기, 기타(자유)

접수 기간 : 11월 9일(금)까지

접수 방법 : 방문, 우편(11월 9일(금) 소인까지), 메일(11월 2일(금)까지)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문의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2-2100-3662, ㉡www.mois.go.kr, ㉢ss1058@korea.kr

‘강도(江都), 고려왕릉’ 특별전

시립박물관은 고려 건국(918년) 1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강도(江都), 고려왕릉’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기간 : 10월 30일(화) 오후 3시~12월 9일(일)

장소 :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 구성

1부 강도, 고려의 도읍 / 2부 강도, 고려왕릉이 자리하다 /

3부 강도, 고려왕릉이 드러나다 / 4부 강도, 고려인이 잠들다

문의 : 시립박물관 ㉠440-6735, ㉡museum.incheon.go.kr



2018년 모범 직업소개소 선정

우리 시는 보다 안정적인 취업알선환경을 조성하고자, 타의 모범이 되는 직업소개소를 선정해 ‘2018년 희망+취업알선업소’로 인증하고자 합니다.

선정 업체 수 : 10개 이내

신청 기간 : 11월 1일(목)~9일(금)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 소재 유·무료 직업소개소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군·구 관련 부서

문의 : 일자리경제과 ㉠440-4243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신청

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 부천센터 (인천1호선 간석역거리역 3번 출구 도보 4분)

대상 : 구직자, 구인업체

홈페이지 : 건설일드림넷 ㉡www.cid.or.kr

문의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654-1829

2018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나의 사용 조절 UP!’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개인 상담, 병원 연계(치료지원 및 심층평가)

대상 : 11세~24세 청소년(무료)

기간 : 상시

신청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ww.inyouth.or.kr

문의 :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721-2307, 2306

‘청소년 웹진 MOO’ 제19기 청소년 기자 모집

청소년의 생각과 이야기를 반영한다는 의미로 우리 시에서 직접 창간해 운영하는 청소년 웹진 MOO에서 청소년을 대표해 활동할 제19기 청소년 기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 10월 19일(금)~11월 17일(토)

대상 : 현재 인천 거주 15세~17세 청소년 및 인천 소재 학교 재학 중인 중 2~고 1

신청 : ㉡moo.incheon.go.kr에서 신청

문의 : 시 아동청소년과 ㉠440-2847

‘막걸리나 막골리나?’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산업화와 관련된 유적 답사 및 막걸리 빗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시 : 11월 4일(일) 오전 11시~오후 4시

대상 : 성인 20명(무료)

신청 : ㉡compact.incheon.go.kr에서 선착순 신청(회원 가입 및 인증 필수)

신청 기간 : 11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850-6018



제8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 : 11월 6일(화)~19일(월)
수렴 기간 : 11월 19일(월)까지

수렴 내용 :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문의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440-6142

도시탐사 시즌2 수강생 모집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도시탐사 시즌2로 ‘옛길 따라 걷는 인천 가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해안 따라 난 길, 길 따라 형성된 도심’입니다.

일시 : 11월 20일(화) 오전 10시~낮 12시(이론 강의), 11월 21일(수) 오전 10시~낮 12시(현장 답사)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3층 세미나실 및 답사지 일대
대상 : 성인 20명(무료)
신청 : @compact.incheon.go.kr에서 선착순 신청 (회원 가입 및 인증 필수)
신청 기간 : 11월 12일(월) 오전 9시~16일(금)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850-6026, 6031

인천도시탐구생활 초등생 모집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인천도시탐구생활’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개항 이후 인천이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시 : 11월 24일(토) 오전 10시~낮 12시(저학년), 오후 2시~4시 30분(고학년)
주제 : 내가 만드는 그림책(저학년), 내가 그리는 만화(고학년)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전시실 및 교육실
대상 : 각 20명(무료)
신청 : @compact.incheon.go.kr에서 신청(회원 가입 및 인증 필수)
신청 기간 : 11월 19일(월) 오전 9시~22일(목) 오후 6시
문의 : 인천도시역사관 ☎850-6016

유물 보고 역사 그리기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를 보고 그리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특특! 알록달록 이야기 가방>

대상 : 6세~초등학생 자녀 동반 가족
일시 : 11월 17일(토) 오전 10시~낮 12시
내용 :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살펴보고, 이 유물을 가방에 옮겨 장식해보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우리 동네 과거 여행>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일시 : 11월 17일(토) 오후 2시~4시
내용 : 선사~조선시대까지 시대별 팝업북 제작

참가비 : 1인당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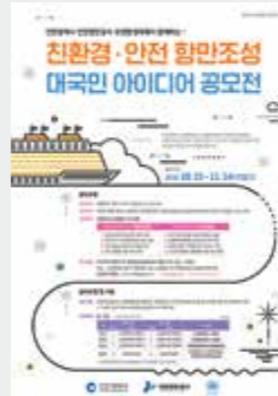
신청 : @sunsa.incheon.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
문의 : 검단선사박물관 ☎440-6798

‘2018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개최 안내



우리 시는 국제기구와 MICE 분야 특화교육 및 취업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주최로 ‘2018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를 개최합니다.

일정 : 11월 9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 송도 컨벤시아 신관 그랜드볼룸 및 회의실
신청 및 세부 프로그램 안내 : @www.iiomcf.com에서 확인
문의 : 시 마이스산업과 ☎440-1524



친환경·안전 항만조성 아이디어 공모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항만’을 주제로 대국민 환경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구성 가능)
기간 : 10월 15일(월)~11월 14일(수)
접수 : 아이디어 제안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우편, 방문, 이메일로 제출
주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인천항만공사 환경안전보안팀
이메일 : @h1u1n1@icpa.or.kr
홈페이지 : @www.icpa.or.kr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무료 영화상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는 무료 영화상영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일시 : 11월 10일(토) 오후 2시 ‘뷰티 인사이드’, 11월 28일(수) 오후 2시 ‘코코’
장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영상실(256석)
문의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832-0915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12 또는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신고 : 국번 없이 ☎112,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 112

낙엽과 어울리는 가을빛 시집

가을입니다. 가을처럼 화려한 색감이 담긴 시집을 소개합니다. 이나혜 시인의 시는 환하고 선명해서 읽을수록 사물의 이름이 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윽한 커피 한잔을 앞에 놓고 시집을 펼쳐볼까요.

눈물은 다리가 백 개 - 대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빛

이나혜(본명 이정숙) 시인이 첫 시집 ‘눈물은 다리가 백 개’를 발간했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이나혜 시인이 2016년 문예지 ‘문학청춘’ 신인상으로 등단할 때까지 7년여 동안 써 모은 것으로, 수록 작품들이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대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시집에는 표제시 ‘눈물은 다리가 백 개’를 비롯해 ‘나는 꽃가게에서 나가야겠다’, ‘연인’, ‘홍시를 희롱하다니’ 등 담백하고 늘어짐 없는 간결한 어휘의 시 66편이 실려 있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전편이 화려한 수사 없이 절제된 감성 언어와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돼 읽을 수록 시적 대상들이 가을빛처럼 명징하게 다가온다는 평과 함께 이 계절에 읽을 만한 시집으로 꼽히고 있다. 발문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김윤식 시인이 썼다.



이나혜 시집
눈물은 다리가 백 개
전 66편, 111쪽, 값 9,000원, 황금알



아이 행복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와 행복을 나눕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 우리 시에서 성장해 나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박예준(남아)
2018년 1월 23일생·연수구

부모의 바람
아이들에게 뛰어노는 일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인천을 기대합니다.



정희원(여아)
2018년 1월 5일생·부평구

부모의 바람
“백설 공주보다 어여쁜 우리 희원아~
엄마는 네가 잘 먹고 쑥쑥 자라는 걸로 행복지수가 높아진단다. 사랑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동이 가족을 위한 혜택도 늘려주세요.



조윤서(여아)
2018년 1월 6일생·부평구

부모의 바람
항상 잘 먹고 활발히 돌아다니며 노는 모습이 예쁜 우리 집 둘째랍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접하면 언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잠깐!

보육·교육 도시를 위한 공동 돌봄나눔터 확대

우리 시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 돌봄나눔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25억원을 들여 ‘공동 돌봄나눔터’ 10곳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동 돌봄나눔터는 국비와 시비, 군·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품앗이와 부모 간 소통공간을 제공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만족도와 수요를 조사해 원도심과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돌봄나눔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72

아기와 함께 찍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나 아이의 귀엽고 재미있는 일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아기 이름, 탄생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인천에서 성장할 아이에게 바라는 내용 및 인천시에 바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메일(goodvoice@korea.kr)로 보내주시면 ‘굿모닝인천’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는 출생 후부터 24개월까지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미디어담당관실 ☎440-8304

브랜드, 혁신을 갖고 놀다 레고

글 이종선 시 브랜드전략팀장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면 대부분 장난감을 떠올리고, 이어서 레고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레고는 장난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부모들도 자녀의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레고를 선뜻 사주는 경우가 많다. 레고는 어떻게 장난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레고(Lego)라는 말은 레고의 고향인 덴마크어에서 따왔다. ‘잘 논다(play well)’라는 의미의 덴마크어인 ‘leg godt’에서 단어의 첫 두 글자를 결합해 만든 것이 레고(Lego)다. 레고에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블록을 지난 주 출시된 블록에 끼워도 아주 잘 맞는다. 장난감은 갖고 놀다가 시들해지면 집안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레고 블록은 아이들이 예전에 갖고 놀던 블록을 새로 산 블록과 결합해서 자기만의 모형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플라스틱 레고 블록이 처음 세상에 나온 1958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기본 원칙이자 힘이다. 눈과 입이 그려진 노란색 얼굴의 플라스틱 인형인 미니 피규어는 아이들이 블록과 함께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노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미니 피규어를 토대로 만든 3D 애니메이션 영화 ‘레고 무비’는 2014년 5,336억원의 흥행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한 해 생산되는 레고 블록은 457억 개에 달하며, 1년 동안 판매된 레고 블록을 모두 이어 붙이면 지구를 18번 돌 수 있을 정도다.



레고가 항상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아이들이 인터넷과 비디오게임에 눈을 돌리면서 레고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레고가 문 닫을 위기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계기는 ‘레고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 소프트웨어, 인형 등 확장 사업을 접고, 기본인 블록을 이용한 이야기 만들기에 집중함으로써 재기했다. 장난감에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것이다. ‘레고 무비’를 시작으로 ‘키마’, ‘닌자고’와 같은 애니메이션 시리즈, ‘해리포터’나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 시리즈 등 다양한 이야기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고객층을 아이에서 어른까지 넓혀 나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1위로 올라섰다.

레고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혁신이라는 유행만 좇다가 끝내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많다. 그 브랜드들이 레고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지금도 우리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K팝 뿌리, 인천 음악클럽의 부활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그리울 때면 그곳으로 갔다. 사람인지, 계절인지, 아니면 도 달하고 싶은 이상향인지 형체가 불분명한 그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면 발걸음을 옮겼다.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행복한 순간에도 찾아갔고, 반주를 겸한 저녁식사 뒤엔 정해진 코스처럼 들르기도 했다.

‘투-둑, 지지-직’ 먼지 튀는 소리가 섞인 LP판 음악과 하얀 거품이 얹혀진 맥주, 다크브라운의 실내가 전부였지만 문 하나를 경계로 카페 안팎은 마치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선명하게 구분돼 있었다. 고단한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흐르는 물’이란 이름처럼, 그곳엔 늘 강물처럼 음악이 흘렀고 밤하늘에 흩뿌려진 은하수의 별들만큼이나 무수한 사연이 밤늦도록 오고 갔다. 가로수 나뭇잎들이 황갈색으로 변해가던 지난 10월 중순, 신포동의 음악 클럽 ‘흐르는 물’이 ‘30주년 초청 콘서트’를 진행했다. 인천시민들과 음악으로 교감해 온 30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흐르는 물’과 함께 ‘버텨라인’(Since 1983), ‘탄트라’(Since 1979) 같은 신포동 음악 클럽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후 송의동에 다국적이 주둔하면서 인근 신포동 일대엔 이들을 고객으로 한 상권이 형성된다. ‘인천’이란 낯선 땅에 머물게 된 군인들의 낙이라면 고향의 음악을 들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맨드라미, 들국화가 어우러진 가을의 들녘처럼 신포동엔 포크, 컨트리, 재즈, 블루스, 소울과 같은 서양음악 연주 클럽들이 하나둘 피어난다.

외국인들에겐 그저 쉬는 공간이었으나 가난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엔 자아실현과 밥벌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꿈의 무대였다. 동산중 2학년 때부터 미군에게 기타를 배워 훗날 ‘키보이스’란 우리나라 1세대 밴드를 결성한 김홍탁, ‘데블스’란 그룹을 이끈 김명길, ‘애드훅’의 김대환, ‘사랑과 평화’의 이철호와 같은 인천 출신 뮤지션들이 음악 클럽에서 시작해 이름을 날린 대표적 사례다. 이후 소리새, 구창모와 같은 인천 출신 가수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천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시대를 끌어 나간다. 1945년 광복 이전까지만 해

도 일본 엔카(演歌)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가 대세였던 우리 대중음악이 서양 문화의 색깔을 입으며 도약한 시기가 이때이다.

한국 대중음악이 외래 음악을 무분별하게 흡수한 건 물론 아니다. 신흥초 시절, 신포동 클럽 음악을 귀동냥으로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운 송창식이 서양음악에 국악을 접목한 독창적 영역을 구축한 것처럼 우리 대중음악은 한국 정서를 버무린 새로운 음악 세계를 빚어낸다.

1990년대 가요 혁명을 일으킨 ‘서태지와 아이들’을 거쳐 지금의 ‘방탄소년단’, ‘싸이’와 같은 K팝 스타의 등장은 그 맹아를 인천이 싹틔웠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 인천을 ‘음악 도시’라 주장하는 이유는 이처럼 신포동과 함께 주한미군 지원사령부 애스컴(ASCOM)이 있던 부평 신촌·삼릉에서 활약한 수십 개의 음악 클럽들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굵은 획을 그었기 때문이다. 불야성을 이루던 클럽들은 1970년대 미군이 철수하면서 ‘시멘스’(Seamen’s) 같은 외향선원 전용 클럽으로 변신하거나 문을 닫는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4월 인천에선 ‘인천대중음악전문공연장협회’가 출범한다.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이던 인천 음악 클럽의 재건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다. 락캐프, 버텨라인, 흐르는 물, 쥐똥나무, 공감, 뮤즈 등 6개 클럽은 현재 인천 전역에 혈관처럼 퍼져 재즈, 포크, 메탈 등 다양한 장르로 인천 음악 클럽의 맥을 잇는 중이다.

이들 음악 클럽들은 인천시가 매년 개최하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잉크콘서트’, ‘월드 클럽 돔 코리아’ 같은 시민 음악축제와 더불어 인천 문화를 살찌우고 있다. 서로 다른 빛깔의 남녀가 만나 부부란 이름으로 은은하게 채색되어 가는 것처럼, 민·관이 양상불을 이루며 크고 작은 무대가 공존하는 음악 도시 인천, ‘살고 싶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버거운 삶을 위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갈 용기를 주며 사랑을 키워주는 존재 음악.

가을비라도 내리면, 음악 클럽에 가서 ‘저스트 웬 아이 니드 유 모스트’(Just when I needed you most)를 들어야겠다.

장수동 은행나무



여름 내내 무성한 잎으로 넓은 그늘을 안겨줘도, 밥벌이에 바쁜 사람들은 그 아래서 오래 쉴 수 없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봄여름의 지난한 노동을 다하고야 노거수 앞에서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풍요로운 가을의 색깔을 볼 수 있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 장수동 은행나무는 황금색 폭죽을 터뜨린다. 가지마다 무수히 달린 노란색 리본은, 그렇게 결실의 가을을 축하한다.

‘빛나는 열매를 수확했거나 혹여 그렇지 못했어도, 계절의 순환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대, 그것만으로 황금 은행잎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네.’

나무는, 너른 부모의 마음으로 손가지를 내밀며 우리를 쓰다듬는다.

나무 높이 : 30m / 나이 : 800여 년
특징 : 수령이 오래되었지만 나무의 손상이 거의 없고,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계절마다 모양새가 아름답다.
저를 물리는 신목(神木)으로 정했으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